

《참가민주주의》론의 부당성

박 경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라 돈과 권세밖에 모르는 황금만능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이며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사회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억만금을 독차지한 독점 자본가들의 노예로 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00페이지)

자본주의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며 근로대중의 정치참가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 황금만능의 사회,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사회이다.

오늘 현대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참가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참가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제창하면서 반인민적부르조아독재정치를 미화분식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사회의 《참가민주주의》론에서 리론적전제로 내건 주되는 론거는 자본주의사회에 근로대중의 정치참가를 위한 조건이 조성되어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참가》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독점자본이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전반을 좌우지하는 현대자본주의사회현실을 합리화하는 기만적인 론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본주의정치변호론자들은 지난 세기초에 영국의 정치학자 조지 더글러스 호워드 콜의 《길드사회주의》론에서 지적된 《참가》의 조건에 대한 론의를 끌어들이며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정치참가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실현된듯이 표방하고있다.

이러한 《길드사회주의》론의 론조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로의 개량》을 설교하는 유럽의 여러 사회민주주의조류들과 마찬가지로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으며 오늘도 각이한 변형론들이 자본주의사회에 류포되어 근로대중의 계급의식을 흐리게 하고 제국주의정치를 미화분식하는데 악용되고있다.

《길드사회주의》론이 주장한 《소소유자들의 평등한 연합에 의한 이상사회의 건설》이란 독점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된 제국주의단계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실현될수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론리는 파산을 면할수 없었다.

현대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이미 리론실천적모순과 그 해독적후과로 하여 버림받은 《길드사회주의》론의 론의를 《산업화사회의 정치참가》와 《진정한 민주주의적정체으로 향하는 열쇠》를 제공한것이라고 미화분식하면서 되살리고있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의 근로대중의 《정치참가》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참가민주주의》론은 본질에 있어서 부르조아독재정치에 대한 변호론에 불과하다.

현대자본주의《참가민주주의》론은 철두철미 독점자본에 의한 근로인민대중의 노예화를 은폐하고 자본주의사회에 그 무슨 《정치참가》의 조건이 갖추어진듯이 떠드는 황당무제한 반

동적론의이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참가민주주의》의 조건에 관한 논의의 부당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산업사회》와 《자유로운 사회조직》의 미명아래 현대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는 허황한 꾀변이라는데 있다.

《참가민주주의》론에서는 현대의 자본주의사회가 《산업사회》로서 《사회조직의 목적은 단순히 물질적인 효률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든 성원들의 충분한 자기 표현에 있다.》라고 한다.

우선 《산업사회》라는 미명아래 현대자본주의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민주주의적인 정치참가를 보장하는 사회적조건으로 되는듯이 기만하는 비과학적인 주장이다.

현대자본주의의 성격은 본질에 있어서 《산업사회》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조건을 보장하는 반인민적사회라는데 있다.

《산업사회》라는것은 자본주의이전시기의 생산력수준과의 대비속에서 사회의 면모를 특징짓는 개념으로 될수는 있으나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의 성격은 결코 산업의 발전정도에 의하여 규정될 문제가 아니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공업의 발전과 함께 근로대중의집단화가 추진되고 자본가와 근로자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생산과 관리에서 협조할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는것은 사실상 자본가계급에게 복무하는 《계급협조》론의 재판이다.

자본주의사회는 말그대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현대자본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독점자본이 사회적재부와 국가권력을 완전히 틀어쥐고 근로인민대중을 노예화하는 부르쥔아독재로 특징지어진다.

원래 자본가들은 자기의 계급적본성으로부터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살아나갈수 없는 기생적존재이며 생산수단을 장악한 자본가들이 기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근로자들과의 토론과 협조를 통하여 결정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오늘날 공업의 발전수준이 지난날과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섰지만 자본의 착취적, 약탈적성격은 변하지 않았으며 빈부의 차이와 실업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불치의 병은 더욱 악화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산업의 발전은 사회계급적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며 새로운 모순을 만들어낸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산업의 발전은 자본가들이 근로인민대중을 더욱더 노예화하는 조건으로 되고있다. 현대과학기술의 리용은 대중적실업을 만성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생활조건을 더욱더 악화시킨다.

《산업사회》라고 하는 현대자본주의는 《협조》와 《민주주의적참가》의 조건이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근로인민대중사이의 계급적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키는 사회적근원이다.

《참가민주주의》론이 현대사회에 《산업사회》라는 허울을 씌워놓은것은 이러한 초계급적인 개념으로 현대자본주의의 반인민적성격을 은폐하고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한것에 불과하다.

또한 자본주의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나온 사회인듯이 묘사하는 파렴치한 꾀변이다.

사회에 모든 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구성된 사회조직》이란 그 어느 착취계급사회에서도 있어본적이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지난날 신흥부르조아지가 봉건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다수자의 지배》를 이룬바 민주주의의 표징으로 내걸고 자본주의제도를 수립하였지만 여기에서 《다수》란 한줌도 못되는 봉건세력에 비해 다수를 이룬 부르조아지를 의미하는것이였지 결코 근로인민대중을 넘두에 둔 것은 아니였다.

봉건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신흥부르조아지가 근로인민대중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것은 봉건사회에서 그들이 착취계급이면서도 사회정치적으로 무권리한 처지에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부르조아지는 근로인민대중이 봉건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본주의제도를 수립한 다음 신분적예속과 경제외적착취를 황금의 사슬에 의거한 노예체제, 고용로동에 의한 착취의 체제로 대체하였다.

결국 자본주의사회는 자본가계급의 《의지》에 따라 구성된 사회조직의 체계에 불과하며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면서도 자본가계급에게 몰락당하여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유린하는 자본주의제도를 수립하는 리용물로 되었을뿐이다.

이러한 자본주의를 두고 그 무슨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형성된 《복합체》이니 뭐니 하고 주장하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착취계급적성격을 부인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우롱하는 기만론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참가민주주의》의 조건에 관한 논의의 부당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자본주의국가정치에서 《집단에 대한 참가》와 《집단간경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수 있는듯이 기만하는 허황한 꾀변이라는데 있다.

《참가민주주의》론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기의 요구와 리익을 대표하는 여러 정치집단들에 자유롭게 소속되어 정치생활을 할수 있으며 이러한 《동등한 집단》들사이의 경쟁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보장될수 있다고 제창한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집단에 대한 참가》와 《집단들사이의 경쟁》을 통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조건이 조성된다는 《참가민주주의》론의 주장은 허황한 꾀변에 불과하다.

《참가민주주의》론은 우선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기의 정치적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조직들을 통하여 정치에 참가할수 있는듯이 떠드는 꾀변이다.

현대자본주의는 《정치참가》와 《충분한 자유》를 독점자본가계급에게만 보장하는 반인민적착취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요구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을 망라한 사회적집단들이 존재하는것을 《참가민주주의》의 조건으로 묘사하는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의 사상적기초가 개인주의로 되어있고 돈과 권세밖에 모르는 황금만능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재부를 독차지한 자본가계급의 정당, 단체들이 국가정치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 로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대중적조직들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국가정치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수 없으며 오히려 부르조아《민주주의》를 미화분식하는 치장물로 리용될뿐이다.

지난 기간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상의 영향밑에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조직을 통하여 자기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을 위한 투쟁을 벌려왔다. 자본주의나라들

에서 근로대중은 오랜 투쟁을 통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내용으로 하는 《로동3권》과 같은 일련의 권리들을 쟁취하게 되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테두리내에서 《로조활동의 자유》를 표방하고있으며 심지어 로동조합대표들을 자본주의기업활동에 관한 문제토의나 전국적범위에서의 경제문제토의에까지 참가시킨다고 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가들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상요구를 억누르고 그들을 회유기만하는 공간으로 될뿐이다.

자본가들이 형식상 로조대표들을 참가시키고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여 거기에서 근로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위한 경영전략이나 정책이 작성되는것도 아니며 자본가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유익한 시책이 나올수도 없는것이다.

한편 생산수단을 장악한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아갈수 있는 근로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각이한 방법으로 《로동3권》을 유린하며 로조들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있다. 자본가들은 로조를 결성할수 있는 부문, 기업들을 한정하며 계절로동과 비정규직 등에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로동운동은 초보적인 생존권을 위한 범위에만 한정되어있으며 근로자들의 진정한 사회정치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자본가계급을 위한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과 관련되는 필연적귀결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본주의변호론자들이 로동조합을 비롯한 대중단체들에 근로자들이 망라되어있는 현상을 놓고 마치도 《참가민주주의》의 실현조건이라고 떠드는것은 비과학적인 꾀변에 불과하다.

《참가민주주의》론은 또한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의 《집단간경쟁》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할수 있는듯이 묘사하는 꾀변이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표면적으로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단체들이 집권경쟁에 참가하며 형식상 모든 국민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는것으로 되어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다당제를 실시하고있지만 집권경쟁에 참가하는 정당들은 거의 다 착취계급의 정당들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각이한 계급, 계층을 망라한 정당과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동등한 지위에 있는것이 아니다.

착취계급의 정당들만을 위한 《민주주의》, 근로대중의 혁명적당의 조직과 활동을 법적, 제도적으로 억누르는 횡포한 부르쥔아독재라는데 《참가민주주의》를 떠드는 자본주의정치의 반인민적본질이 있다.

원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인민대중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룰뿐아니라 자본가계급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대립되게 되며 따라서 자본가계급의 여러 정당들이 존재하면서 권력장악을 노린 각축전을 벌리는 다당제가 실시된다. 이러한 《다당제민주주의》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로 오도될수 없으며 그것은 자본주의사회계급관계의 필연적산물로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부르쥔아독재를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정치방식이다.

《참가민주주의》론이 떠드는 《경쟁》이란 본질에 있어서 망해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심

화되는 착취계급내부의 정치적대립과 모순을 반영한것으로서 자본가계급의 취약성과 추악한 본성이 정치무대를 통하여 표면화된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현대자본주의는 항시적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처해있으며 자본가계급내부에서도 서로 물고뜯는 싸움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과 자본주의의 고유한 자체모순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들로 하여 자본주의는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자본가계급내부의 정견과 이해관계에 따르는 대립과 모순을 반영하여 여러 부르쵸아정당들이 나오고 치열한 집권경쟁이 벌어진다. 물론 이러한 부르쵸아정당들간의 싸움이 인민대중에 대한 독점자본의 계급적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착취계급내부의 《경쟁》에 불과하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당제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정당들사이의 《경쟁》은 경제와 정치를 좌우지하는 독점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어느 정당이 더 잘 실현할수 있는가에 따라 그 결말이 결정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다당제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근본목적도 바로 여러 정당들을 내세워 경쟁하게 함으로써 독점자본가들의 통치실현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정당 또는 정당연합을 주축으로 하고 이여의 군소부르쵸아정당들이 존재하는 부르쵸아독재체제를 수립하자는데 있다.

《참가민주주의》론이 주장하는 《경쟁》이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 대한 독점자본가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더욱 철저히 그리고 보다 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자본가계급내부의 《경쟁》이며 인민대중을 부르쵸아독재의 대상으로만 삼는 자본주의정치의 반동성을 가리우려는 기만적인 광대놀음이다.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배제하고 착취계급에게만 정치참가의 기회를 보장하는 현대자본주의의 다당제와 부르쵸아정당들사이의 《경쟁》을 《참가민주주의》의 조건으로 오도하는것은 허용될수 없는 이론적협잡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참가민주주의》의 조건이 보장된다는 자본주의변호론은 철두철미 독점자본가계급의 독재정치를 은폐하는 비과학적인 기만론으로 일관되어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의 정치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자본주의를 《민주주의》의 간판으로 미화분식하면서 전세계의 자본주의화를 설교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궤변을 철저히 짓부시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제자주화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